



국내 IT 행사에 대한 小考

박상선

윌간 Linux@Work 취재팀장 / July@pserang.co.kr



담당분야는 '리눅스',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전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 등 좀 버겁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리눅스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눅스에 진숙해 졌는데, 한마디로 리눅스는 '물건'이다. 사용자 중심의 철학이 곳곳에 배인 사람 냄새나는 유일한 운영 체제이다. 고용량 하드디스크 시대(?)인 만큼 한번씩 깔아보라. 사용문의는 언제나 환영!

컴덱스, 인터넷월드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행사에 가보면 행사장 바다에 앉아 두툼한 행사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가며 일정을 체크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전시행사 규모가 큰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주제로 구색을 갖춘 컨퍼런스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 놓지 않으면 행사를 알차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와 컨퍼런스를 오가며 IT 업계의 맥 짚기

일년 열두달, 릴레이 하듯 세계 곳곳에서 IT 관련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행사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과 비즈니스 흐름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은다. 21세기의 시대적 키워드인 IT 분야의 흐름을 행사장에서 느껴 보려면 어떤 행사 보기 방법이 필요할까? 행사 진행에 있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전시장과 컨퍼런스를 오가며 IT 흐름의 맥을 짚는다”라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발전 경향은 컨퍼런스를 통해, 이를 실질적인 제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전시장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측의 프로 정신과 참관객들의 행사 보기 문화라는 두 가지 잣대로 재보면 아직 이 같은 행사 보기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적어도 3-4개월 전에 행사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계획된 일정에 큰 변동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 행사 1달 전이 돼야, 행사에 관한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다. “참가 업체와 컨퍼런스 강사 섭외만 끝나면 행사 주최측은 할 일 다했다” 식으로 행사 치루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 목적 의식 없이 귀청을 울리는 음악 소리로 가득찬 전시장만 배회하는 참관객들의 행사 보기 문화가 맞물려 국내 행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주최측의 프로 정신, 참관객의 목적 의식

지난 4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춘계 컴덱스 2000은 춘계 컴덱스의 명성(?)대로 볼꺼리가 없었다. 하지만, 행사 주최측인 Key 3 Media가 전시 행사와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All business is e-business”란 포장지로 그럴 듯 하게 한데 묶어내는 노련한 행사 진행으로 컴덱스란 이름값을 했다. 이처럼 전시회를 업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품으로 다듬어 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주관 업체의 프로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IT 행사 전문 업체인 ZD Events 산하 Key 3 Media가 단순한 이벤트 업체라기 보다, IT 업계에 대한 흐름을 간파한 전문 업체의 역량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컨퍼런스의 경우 정말 많다 싶을 정도의 세션이 열렸다. 일반인, 비즈니스맨,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의 경우 참가자들이 열심히 메모하며 컨퍼런스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이유는 유명 강사진도 한몫했지만, 값비싼 컨퍼런스 참관비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컴덱스만 하더라도 전시와 컨퍼런스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등록비가 무려 1천7백 불이나 했다. 즉, 적절한 가치대감으로 컨퍼런스에 대한 참관객들의 집중도도 높이고, 유명 강사를 초대하기 위한 운영비를 마련해 컨퍼런스 자체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참관객들이 목적 의식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이유이다. 과연 국내에서 컴덱스와 같이 수준 높은 행사가 가능할까?

6월 14-17일 4일 간의 일정으로 “글로벌 리눅스 2000”이란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리눅스 분야에 국한된 행사지만 행사 내용면에서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과, 몇십 만원대의 고가이지만 유명 강사들이 진행되는 밀도 높은 컨퍼런스 세션들이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주최측의 프로 정신이 돋보이는 탄탄한 진행으로 참관객들의 행사 참여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KCRC**